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0.26

미 증시, 불확실성 확대에 하락 마감(f.AI, 전쟁, 금리)

김석환 seokhwan.kim@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불확실성 ↑

•미 증시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부문 실적 부진과 9월 신규주택판매 서프라이즈, 중동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하락하며 200일선 및 전저점을 하회하며 마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낙폭이 컸음. 또한 9월 신규주택판매가 예상을 상회하자, 미국채수익률 전반에 걸쳐 상승 압력이 크게 나타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 또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지상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자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한 점도 증시 하방 압력을 키워. (다우 -0.32%, 나스닥 -2.43%, S&P500 -1.43%, 러셀2000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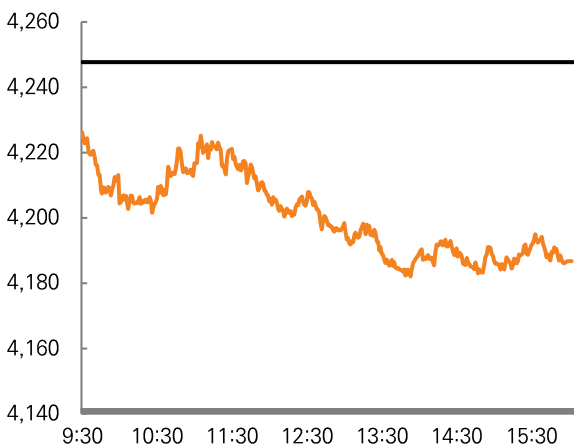
특징 종목: 알파벳 급락

•S&P 500의 주요 섹터 중 유틸리티(+0.49%)와 필수소비재(+0.33%)을 제외한 9개 섹터 하락. 특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5.89%)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5.89%)을 기록.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9.60%)은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클라우드 수익은 예상을 하회하면서 AI 사업부문에 대한 우려 키워. 이에 아마존(-5.58%), 메타플랫폼스(-4.17%) 등도 동반 약세 기록. 반면 마이크로소프트(+3.07%)는 견고한 실적을 보이며 ‘매그니피센트 7’ 중 유일하게 상승세 기록. 텍사스인스트루먼트(-3.49%)는 부진한 3분기 매출과 4분기 가이드런스 하향 영향으로 하락. 이는 반도체 수요 및 업황에 대한 우려를 다시 키우며 엔비디아(-4.32%), AMD(-5.52%), 인텔(-5.09%) 등 주요 칩 메이커들의 주가 낙폭 키워.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 역시 4% 넘게 하락.

한국 증시 전망: 패닉셀링 주의

•MSCI 한국 지수 ETF는 2.54%, MSCI 신흥 지수 ETF는 1.3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0.02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07% 하락. KOSPI는 1.0~1.5%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국내증시는 뚜렷한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가운데, 금일 추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 특히 국내증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2차전지 등이 업황 개선 지연 및 수요 둔화 우려로 간밤 美 증시에서 낙폭을 키운 만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또한 달러 강세 여파 속, 달러/원 환율 상승과 외국인 수급 부재는 증시의 하방 압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 외국인은 이 달 들어 약 2.1조원 이상 순매도한 가운데, 26개 주요 업종 중 반도체(+1.36%) 제외 25개 업종의 평균 월간 수익률은 -6.02%로 시장 평균 -4.17%를 하회.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63.17	-0.85	상해종합	2,974.11	+0.40
KOSDAQ	770.84	-1.79	홍콩항생	17,085.33	+0.55
DOW	33,035.93	-0.32	인도센섹스	64,049.06	-0.81
NASDAQ	12,821.22	-2.43	유로스톡스 50	4,073.35	+0.20
S&P 500	4,186.77	-1.43	영국	7,414.34	+0.33
캐나다	18,947.85	-0.20	독일	14,892.18	+0.08
일본	31,269.92	+0.67	프랑스	6,915.07	+0.31


 변화 요인

Invisible vs. Visible

미 증시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부문 실적 부진과 9월 신규주택판매 서프라이즈, 중동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하락하며 200일선 및 전저점을 하회하며 마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낙폭이 컸음. 또한 9월 신규주택판매가 예상을 상회하자, 美 국채수익률 전반에 걸쳐 상승 압력이 크게 나타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 또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지상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자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한 점도 증시 하방 압력을 키워.

알파벳 '쇼크' 본질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에 대한 엇갈린 주가 흐름이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쳐. 표면적으로 두 회사의 실적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꼭 '비관적'이라고 볼 수 없어. 그러나 올해 시장의 키워드가 '인공지능(AI)'이었던 만큼, 이 부문에 대한 투자자들의 냉혹한 평가가 주가 향방을 나눴다고 생각. AI 사업과 직결된 클라우드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을 상회한 반면 알파벳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 이에 알파벳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3월 16일(-11.6%)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였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역시 변동성이 컸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5.89%)을 기록하며 증시 하방 압력을 키워. 무엇보다 AI 산업의 경쟁 심화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매크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이 컸다고 볼 수 있어. 이제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적과 성장'에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어. 그렇기에 시장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향후 주가 흐름은 꽤 도전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9월 신규주택판매 '서프라이즈'

美 모기지 금리가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9월 신규주택판매가 전월대비 12.3% 증가한 75.9만건을 기록하며 2022년 2월 이후 최고치 기록. 이는 전월 수정된 67.6만건과 시장 컨센서스인 68.0만건을 크게 상회. 이는 주택건설업자들이 수요를 신규주택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금리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평형 축소 및 디자인 변경 등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 실제 전국주택건설협회(NAHB)는 지난 주 건축업자의 약 3분의 1이 10월에 주택 가격을 인하했다고 보고했는데, 평균 가격 할인율은 6%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3분기 주택시장 호조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9분기 만에 (+)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이에 장기채 수익률 상승 압력이 커진 점도 금일 증시에 부담이 돼. 10년물은 전일대비 13bp 넘게 상승하며 거의 5%에 육박. 2년물과의 장단기금리차는 -18bp까지 축소하며 '베어스티프닝(장기채 상승폭이 단기채보다 큰 상황)' 나타나.

지정학적 이슈 업데이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및 지상전 가능성이 낮아진 듯하였으나, 이 날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 이에 장 초반 하락했던 유가는 상승 반전하였고, 달러 강세 폭 확대. IMF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구름이라고 평가.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전쟁 양상에 따라 유가가 최대 배럴당 \$2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급락

S&P 500의 주요 섹터 중 유틸리티(+0.49%)와 필수소비재(+0.33%)를 제외한 9개 섹터 하락. 특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5.89%)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5.89%)을 기록.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9.60%)은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클라우드 수익은 예상을 하회하면서 AI 사업부문에 대한 우려 키워. 이에 아마존(-5.58%), 메타플랫폼스(-4.17%) 등도 동반 약세 기록. 반면 마이크로소프트(+3.07%)는 견고한 실적을 보이며 매그니피센트 7 중 유일하게 상승세 기록. 페이팔(-5.07%), 블록(-8.00%), 어퍼홀딩스(-14.93%) 등 주요 핀테크 업체들은 유럽의 주요 핀테크 업체들(佛 월드파인, 伊 넥시 등)의 실적 부진 여파에 하락. 텍사스인스트루먼트(-3.49%)는 부진한 3분기 매출과 4분기 가이던스 하향 영향으로 하락. 이는 반도체 수요 및 업황에 대한 우려를 다시 키우며 엔비디아(-4.32%), AMD(-5.52%), 인텔(-5.09%) 등 주요 칩 메이커들의 주가 낙폭 키워.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 역시 4% 넘게 하락.

반면 도이체뱅크(+7.36%)는 높은 이자율 영향으로 3분기 호실적 발표와 연간 수익이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상승. 제너럴다이내믹스(+5.03%)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6.10%)는 3분기 호실적 발표에 각각 상승. 갭(+5.24%)은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하자 강세.

상품 및
FX시장 동향

유가 ↑, 국채수익률 ↑

국제유가는 장 초반 주간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잠시)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는 판단에 하락. 그러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발언 영향으로 유가는 상승 반전. 여기에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된다면 유가가 최대 배럴당 250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놔. 결국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 경로에 대한 매우 불투명한 전망이 현재 가장 큰 '꼬리위험'이라고 볼 수 있어.

미 국채 수익률은 5년물 이상의 장기채 상승 압력이 커지며 '베어스티프닝'이 나타나. 이에 10년물과 2년물 간의 장단기금리차는 -18bp 수준까지 축소. 시장은 특히 장기채 금리 상승의 여파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장기채 금리는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 실제 미국의 모기지 금리(30년, 고정)는 최근 23년래 최고점을 지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

한국
주식시장 전망

패닉셀링 주의

MSCI 한국 지수 ETF는 2.54%, MSCI 신흥 지수 ETF는 1.3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50.02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07% 하락. KOSPI는 1.0~1.5%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국내증시는 뚜렷한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가운데, 금일 추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 특히 국내증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2차전지 등이 업황 개선 지연 및 수요 둔화 우려로 간밤 美 증시에서 낙폭을 키운 만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또한 달러 강세 여파 속, 달러/원 환율 상승과 외국인 수급 부재는 증시의 하방 압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 외국인은 이 달 들어 약 2.1조원 이상 순매도한 가운데, 26개 주요 업종 중 반도체(+1.36%) 제외 25개 업종의 평균 월간 수익률은 -6.02%로 시장 평균 -4.17%를 하회.



반도체, 2차전지 ETF 약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16	대형 가치주 ETF (IVE)	-1.08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1.37
소매업체 ETF (XLY)	-2.02	소형 가치주 ETF (IWN)	-1.17
온라인소매 ETF (EBIZ)	-2.89	대형 성장주 ETF (VUG)	-2.26
미국 인프라 ETF (PAVE)	-1.46	중형 성장주 ETF (IWP)	-2.34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2.14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3.49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48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26	미국 국채 ETF (IEF)	-0.88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83	하이일드 ETF (JNK)	-0.48
바이오섹터 ETF (IBB)	-1.91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2.53	물가연동채 ETF (TIP)	-0.42
반도체 ETF (SMH)	-3.87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91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유틸리티	301.17	+0.48	+0.20	-6.19
필수소비재	717.99	+0.33	-0.15	-2.94
에너지	669.21	-0.16	-4.97	-3.61
금융	533.21	-0.45	-3.25	-5.11
헬스케어	1,473.55	-0.90	-2.58	-3.45
소재	468.75	-1.14	-3.43	-5.81
IT	2,900.01	-1.19	-2.18	-0.74
산업재	826.65	-1.27	-2.93	-4.50
부동산	201.75	-2.07	-4.66	-6.98
경기소비재	1,182.29	-2.40	-4.96	-7.33
커뮤니케이션	218.40	-5.89	-4.70	-2.10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5.39	+1.82	-2.30	Dollar Index	106.546	+0.26	-0.02
브렌트유	90.13	+2.18	-1.65	EUR/USD	1.0566	-0.23	+0.28
천연가스	3.01	+1.92	-0.92	USD/JPY	150.26	+0.23	+0.22
금	1,994.90	+0.22	+1.13	GBP/USD	1.2109	-0.42	-0.26
은	23.01	-0.55	-0.47	USD/CHF	0.8969	+0.41	-0.23
알루미늄	2,219.00	+1.28	+1.70	AUD/USD	0.6307	-0.76	-0.46
전기동	8,032.00	-0.24	+0.75	USD/CAD	1.3800	+0.43	+0.61
아연	2,480.00	+1.54	+1.79	USD/RUB	93.4063	-0.22	-4.66
옥수수	480.00	-0.72	-2.34	USD/BRL	4.9984	+0.13	-1.20
밀	568.50	-2.11	-2.07	USD/CNH	7.3307	+0.22	+0.04
대두	1,308.50	-0.48	-1.58	USD/KRW	1,349.70	+0.49	+0.01
커피	162.30	-3.48	+2.69	USD/KRW NDF1M	1,350.02	+0.59	-0.2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961	+13.84	+4.64	스페인	4.002	+6.40	-5.50
한국	4.287	+2.70	+0.20	포르투갈	3.628	+7.90	-2.90
일본	0.859	+0.80	+5.00	그리스	4.281	+2.50	-14.30
독일	2.889	+6.10	-3.50	이탈리아	4.915	+8.80	-6.7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